

News

은행 정기예금 연 4%시대 목전…은행에 '뭉칫돈' 몰린다

뉴스1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최고 3.99%로 판매… 직전날대비 0.05%p 인상… 미국 연준 발표 이후 채권 금리 뛰면서 해당 상품 금리도 인상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같은 기간 연 4%에 가까운 금리로 예금 상품 판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대에 고객에 둑으려는 의도

금리 3% 미만 소상공인 대출 비중 9개월새 72%→24%로

연합뉴스

6월 말 기준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 3% 미만 금리 적용받은 대출 비중은 23.6% 차지… 불과 9개월 만에 48.5%p 급락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변동금리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많이 증가한 것도 영향

'시한폭탄' 자영업 다중채무자 올해 45% ↑ …평균 4.7억 빚더미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 잔액은 총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 작년말대비 8.0% 많고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
기업대출 받은 자영업자 수도 6개월 만에 325만 327명으로 16.5% 증가…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 1,175만원 수준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맞손…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한국경제TV

네이버파이낸셜, 하나은행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첫 사례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내달 선보일 계획
금융위원회, 지난 7일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와 이자 혜택, 결제시 적립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

보험사 상반기 RBC, 200%대 안정권… 'LAT 40% 자본인정' 영향

아주경제

을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RBC비율 218.8%로 전분기말 대비 9.4%p 상승… 2분기 회계부터 LAT 활용한 임여금의 40%를 자본으로 인정한데 따른 영향
업권별로는 생보사 RBC비율 전분기말 대비 7.4%p 오른 216.2%… 손보사 RBC비율 전분기말 대비 12.7%p 상승한 223.2% 기록

달아오른 주행거리 비례 車보험 경쟁…수익성은 '글쎄'

CEO스코어데일리

을 상반기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3사(악사, 하나, 캐롯)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6.1%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
5개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9.1%로 격차가 2년만에 4.8%p에서 3%p로 줄어… 온라인 판매 손보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운 적극적 마케팅 통해 고객 유치한 결과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연말까지 면제

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합동점검 회의 열고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 논의… 연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사는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없어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하고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당분간 이같은 부담 줄여주기로…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하면 돼…

'위기를 기회로'…삼성·한투·대신증권, 채권판매 열중

굿모닝경제

증권사들, 증시 악화 상황을 채권판매로 활로 찾기 나서… 한미금리 역전으로 증시 변동성 확장 불가피한 상황에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몰리는 니즈 파악한 결과
연말까지 채린이를 잡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 심화 예상… 삼성증권, 이달 초 선보인 해외채권 모바일 매매 서비스가 일주일만에 60억원 투자금 모으며 흥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